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요일로 6월 23일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예비회의에는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예비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군사정책토의안

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역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였다. 예비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다. 본사기자

비범한 정치실력과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주체강국의 존엄을 빛내이고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모심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4돐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진행된 《인민이 신뢰하는 령도자》라는 주제의 인터넷사진전시회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짧은 기간에 1 153만여명의 열람자수를 기록한 전시회에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진보적인인민들의 끝없는 존경과 신뢰심이 뜨겁게 분출되었다.

중국세계평화기금회, 베이징국제평화문화기금회 공동체브레이크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홈페이지를 열람하는 과정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력을 절감할 수 많은 사람들은 위인칭송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위풍당당하시다. 지난 몇년동안에 그의 비범한 정치실력이 파시되었다. 세계의 정치가들은 탄복할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령도는 대단히 멋있다.》 《조선의 령도자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인민은 정말로 행복하다. 사람들의 열굴마다에 행복의 웃음이 담

겨져있다.》

《수령에 대한 인민들의 열화같은 존경과 신뢰는 진정에 넘쳐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의 사랑을 받으시는 훌륭한 령도자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축원한다. 조선의 강성변영을 축원한다.》...

이런것을 조선대사관을 축하방문한 전 이란국제레전드 협회 회장 자비드 사호베르디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력사적사건이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인민이 선대수령들의 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이끄신다.

그이의 령도가 있어 조선은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었으며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나갈

수 있었다.

우리는 이란과 조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련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한편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단체들은 축하성명들에서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뚜렷한 표시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김정은각하의 령도가 있어 조선로동당은 조선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만을 펼쳐가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여러 나라의 언론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뜻한 인정을 지니신 인민적인 정치가》, 《파강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정치가》로 찬양하였다.

우간다전국학생운동기판지 《파블로 렌즈》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세계정치무대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며 인기있는 영상이며 정말이지 인상적이다.

이런 분을 조선인민은 령도자로 우러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매력은 다음으로 빈말을 모르시는 대단히 믿음이 가는분이시라 하신다.

그이께서는 일단 결심하신 데 대해서는 꼭 그대로 실천하신다. 그 어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여유있고 자신감에 넘쳐 정확한 결심을 내리시는 그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하며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조선인민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는 한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철석같은 신조로 간주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또한 매우 혁신적이고 창조적인분이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익,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대담하게 사고하고 실천하신다.

비상한 창조와 혁신은 그의 주되는 활동방식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아랍트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품, 뜨거운 인민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국가활동의 기본요구로 확립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억만재부도 인민을 위해서만 가치를 가진다고 보시며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는것 그자체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시였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도덕도 인민을 위하고 인민적인것만이 향려되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김정은위원장의 숭고한 사랑감은 조선을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는 근원적인이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천만인민을 따사로운 품에 안아 보살피신다. 하기에 조선에서는 부모없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국가의 관심밖에 놓여있는 사람, 인민정권의 시책밖에서 알날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찾아볼수 없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불철주야 정력적으로 사업하신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를 이것저것 재는 식으로가 아니라 최대의 속도로 밀고나가기로 하시며 조선인민을 세기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를 창조해내도 세계적인것을 창조하도록

인민이 신뢰하는 령도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여러 나라에서 칭송

이끄신다. 김정은위원장의 특출한 령도실력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김정은위원장은 조선을 어떻게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는가, 인민들에게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안겨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환히 꿰뚫고계시는 실력가령의 령도자이다.

그이의 령도실력은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혁명을 끊임없는 상승으로 이끄시는 빛나는 예지이고 천만대중을 하나로 움켜쥐어 만민을 구해나가는 원숙한 조직동원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 힘으로 기적을 안아오는 비상한 창조력이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신뢰심은 김정은위원장께서 지니신 뛰어난 령도실력에 대한 끝없는 매혹이고 절대적인 믿음이다.

결출한 령도자를 모시어 조선은 머지않아 사회주의강국으로 솟아오를것이다.

이렇듯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단체들, 언론들의 칭송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인류가 우러르는 위인중의 위인이심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평안남도보건산소공장 준공

평안남도보건산소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준공하였다. 평성시에 일떠선 보건산소공장에는 모든 설비들을 자동조종할수 있는 통합자동조종체계가 구축되어있으며 산소분리기장, 산소총진장 등이 그르히 갖추어져있다. 도보건산소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질 좋은 의료용산소를 대량생산하여 평안남도는 물론 남포시안의 병원들에게까지 보강해출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

게 되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보건산소공장을 자체로 일떠세울 목표밑에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고 공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해나갔다.

건설자들과 련관단위들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파강한 돌격전, 창조전을 벌려

건축공사와 설비조립을 짧은 기간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다그쳐 끝냈다.

평안남도보건산소공장 준공식이 22일에 진행되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공장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건물과 설비들을 예호관리하고 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에방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안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공화국은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마음뜻으로 굳게 단결되어 자주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는 여기에 그 무엇보다도 깨뜨릴수 없는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이 있다.

공화국은 령도자의 사상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일체화를 실현한 정치사상강국이다.

온 사회가 령도자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결집되어야 사회의 정치적안정과 공고성이 확고히 담보되고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존엄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있으며 수령님들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뜻대로만 살며 투쟁해나가고있다.

공화국에서 날에 날마다 세인의 정란을 자아내는 눈부신 기적과 위훈이 련이어 이루어고있는것도 모든것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령도자의 사상의지대로만 해 나가려는 인민들의 투철한 사상관점, 결사관철의 기풍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이것은 오직 온 사회의 사상적일체화를 실현한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참모습이다.

공화국은 사랑과 의리에 기초하여 령도자와 인민이 굳게 단결된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이다.

공화국에서 일심단결은 인민대중이 수령과 사상과 뜻도 하나, 승결과 결음도 하나가 된 사상의지적단결인 동시에 온 사회가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인민대중의 순결한 사상감정에 기초한 도덕의리적단결로서 사회적집단의 단결에서 최고봉을 이룬다.

공화국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단결을 이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밑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정치의 원리로, 인민사랑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하는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운명을 책임적으로 보살피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령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는 그 무엇보다도 비할바없이 두터워지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더욱 굳건해져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

공화국은 자주를 확고부동한 정치철학으로 내세우고있는 정치사상강국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할 때만이 사소한 편차도 없이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갈수 있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며 남에게 의존하려고만 하는 나라는 자기의 주권과 신념을 내세우지 못하고 남의 품에 놀아나기마련이다.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참다운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자주의 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을 국가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며 자기 선택한 주체의 한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해나가고있는 근면비굴도 바로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해오는데 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공화국과 같이 자주적대가 강하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결되고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는 주체조선의 참모습이 있다. 흥정옥

